

## <Speculative Fiction Open Call> 선정작 발표

탈영역우정국의 <Speculative Fiction Open Call>에 지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탈영역우정국은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다양한 협업과 생산, 창작 방법을 모색하는 동시에 더욱 폭넓은 실험에 열려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다림에 감사를 표하며 <Speculative Fiction Open Call>의 최종 결과를 발표합니다.

### 선정대상

지원작 총 6 편

### 선정기준

- 사변소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얼마나 창의적으로 세계관을 정의하였는가?
- 공모전의 제시 단어인 '섬'을 소설 내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또한 의미를 확장하고 있는가?
- 미디어아트 창작물로 이어지기 위해 제시하는 바가 있는가?

### 선정 결과

심너울 - 정적

### 총평

탈영역우정국으로서는 처음으로 실시한 공모전에 참신하고 실험적인 작품들을 제출해주신 지원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제시한 주제를 기반으로 한 예상 밖의 작품들을 만나보는 즐거움을 느껴볼 수 있었다. 특히 문학 작품을 선정 심사하는 것은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 공모 이후 진행될 RTA(Real Time Arts) 공연에 대한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작품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었다.

총 6편의 지원작에서 파악된 주제 의식은 '청결, 소리, 애도, 타자, 꿈의 차원, 남겨진 것'으로, 진지한 주제로 접근한 면모가 돋보이며, 다양한 설정과 배경에 대한 묘사가 두드러지는 작품들이 인상적이다.

심너울님의 제출작 "정적"은 청각이 배제된 상황을 가정하여 소통, 경계, 배려, 고립이 기존과는 다르게 뒤섞이는 일상적이며 동시에 비일상적인 소재였다. 감각이라는 필수 불가결한 조건을 이용하여 덩덤하지만 날카롭게 때론 따뜻하게 감각적, 사회적 이슈를 이끌어 낸 통찰력있는 작품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는 RTA 공연으로 이어졌을 때에도 청감각, 소리를 주제로 보편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해석될 중요한 모티브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심사 과정에서 장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작품은 가장 먼저 배제하였다. 몇몇 작품은 기대 이상의 완성도에도 불구하고 11월에 이어질 단시간에 RTA 공연의 형태로 구현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졌습니다. 몇 작품은 기회가 된다면 구현하고 싶은 욕심이 있음에 아쉬움을 표한다.

### 추후일정

9월 첫째주: 최종 선정작가와와의 만남 및 공모전 상금 전달

9월 셋째주: RTA 공연 기획을 선정작가에게 공유

10월 셋째주: 중간 점검

10월 마지막주: 최종 리허설 및 배포용 인쇄물 제작

11월 3일: 공연

**문의**

탈영역우정국 02) 336-8552 ujeongguk@gmail.com